

□.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39항에 따르면 ‘변변하지 않다’의 준말 표기는 ‘변변찮다’이다.

문 3.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붙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① 죽음을 단절과 상실의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 ②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형상화하였다.
- ③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을 통하여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을 형상화하였다.
- ④ 화려한 수사나 기교가 없는 독백에 가까운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 정답: ③ - 독해 - 문학 - 현대 운문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③ 새벽빛, 이슬, 노을빛 등은 초월적 세계의 영원성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유한성을 형상화한 시어들이다.

★ 오답 해설:

- ① '하늘로 돌아가리라'라는 표현을 통해 죽음을 단절과 상실의 아닌 연속과 회귀의 과정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며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현실을 초월하고 달관하려는 자유의지를 엿볼 수 있다.
- ④ 담담한 어조로 '돌아가리라', '말하리라'라며 1인칭 주어가 선언하는 방식의 독백을 이어가고 있다.

문 4. 현대 한국어의 양순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ㅍ' 등이 있다.
ㄴ. 양순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다.
ㄷ. 'ㅍ'은 비음이지 양순음은 아니다.
ㄹ. 양순음은 발음 과정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는 공통점이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정답: ③ - 이론 문법 - 음운론 - 음운의 자음 체계

★ 정답 해설:

- ㄱ. '양순음(입술소리)'은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뜻한다. 국어의 'ㅂ', 'ㅃ', 'ㅍ', 'ㅍ'이 여기에 해당한다.
- ㄴ. 양순음인 'ㅂ', 'ㅃ', 'ㅍ', 'ㅍ' 모두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으며 소리가 난다.

참고)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알기 쉬운 문법 p. 38)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입술소리	잇몸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안 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ㅃ		ㅍ
		원소리	ㅃ	ㅃ		ㅍ
		거센소리	ㅍ	ㅍ		ㅍ
	파찰음	예사소리			ㅈ	
		원소리			ㅈ	
		거센소리			ㅈ	
울림소리	마찰음	예사소리				ㅎ
		원소리				ㅎ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오답 해설:

- ㄴ. 양순음 중 'ㅂ', 'ㅃ', 'ㅍ'은 파열음, 'ㅍ'은 비음에 해당한다. 입술소리 중 마찰음인 것은 없다.
- ㄷ. 'ㅍ'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르면 울림소리 중 비음에 해당하며 소리 내는 위치에 따라서는 양순음에 해당한다.

문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판소리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춘향가>를 공연한다고 하여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였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광대가 서서 노래를 부르고 옆에 앉은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며 이따금 ㉠“얼씨구” 하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몽룡이 춘향이를 업고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절로 흥이 일었고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로 변장하여 ㉢월매와 말을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 잔치에 모인 벼슬아치들이 ㉣허둥지둥 도망치는 모습을 몸짓으로 흉내내는 것을 보니,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해야 판소리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 | | |
|---|-----|----|-----|-----|
| | ㉠ | ㉡ | ㉢ | ㉣ |
| ① | 추임새 | 소리 | 발림 | 아니리 |
| ② | 너름새 | 더늠 | 발림 | 아니리 |
| ③ | 너름새 | 더늠 | 아니리 | 발림 |
| ④ | 추임새 | 소리 | 아니리 | 발림 |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판소리 용어

★ 정답 해설:

- ㉠ 고수와 관객이 '얼씨구'와 같이 흥을 돋우는 소리를 '추임새'라 한다.
- ㉡ 판소리에서 창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창', '소리'라 한다.
- ㉢ 창과 창 사이에 이야기하듯 엮여가는 사실은 '아니리'라 한다.
- ㉣ '발림'은 판소리에서 흥을 돋우고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 창자가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이다. '너름새'와 같은 말이다.

★ 오답 해설:

- '더늠'은 '명창이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다듬어 부르는 어떤 마당의 한 대목'을 가리키는 판소리 용어이다.

문 6. 밑줄 친 부사어의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고기가 까맣게 탔다.
- ② 비겁하게 굴지 마라.
- ③ 두 사람은 격렬하게 싸웠다.
- ④ 이 술은 시원하게 마셔야 맛있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통사론 - 문장 성분

★ 정답 해설:

‘굴다’는 ‘귀엽게 구는 아이’와 같이 ‘…게’ 형태의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이다. ‘버릇없이 굴다’와 같이 ‘…게’ 대신에 ‘-이/히’ 부사 따위가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부사어 ‘비겁하게’는 문장 내에서 서술어 ‘굴다’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다.

참고) 부사어(副詞語) (알기 쉬운 문법 p. 257)

용언을 주로 꾸미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고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기도 하는 문장 성분을 이른다. 부사·체언에 부사격 조사나 보조사가 붙은 말,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나 부사절이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부사어는 대개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아닌 수의적(隨意的)인 요소이지만 패수식 용언의 성격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종류	내용
수의적 부사어	문장의 구조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부사어(생략 가능)
필수적 부사어	서술어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된 부사어

★ 오답 해설:

- ① ‘뜨거운 열을 받아 검은색으로 변할 정도로 지나치게 익다.’는 뜻의 동사 ‘타다’는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사어 ‘까맣게’는 생략이 가능한 문장 내에서의 수의적 부사어이다.
- ③ ‘싸우다’는 ‘나는 철수와 서로 때리면서 싸웠다.’와 같이 ‘…와/과’ 형태의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이다. ‘그 두 나라는 10년이 넘게 싸우고 있다.’와 같이 ‘…와/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따라서 부사어 ‘격렬하게’는 생략이 가능한 문장 내에서의 수의적 부사어이다.
- ④ ‘마시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이지만, 부사어를 요구하는 동사가 아니다. 따라서 부사어 ‘시원하게’는 생략이 가능한 문장 내에서의 수의적 부사어이다.

문 7. 표준 발음법 상 ‘ㄹ’의 발음이 동일한 것들을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상견례, 의견란, 백리
- ② 임진란, 공권력, 광한루
- ③ 대관령, 입원료, 협력
- ④ 동원령, 구근류, 난로

★ 정답: ① - 어문규정 - 표준 발음법

★ 정답 해설:

‘상견례’의 발음은 [상견례]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의견란’의 발음은 [의 : 견난]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백리’의 발음은 [백니]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참고) 제20항 예외 (알기 쉬운 문법 p. 73)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량]
결단력[결단력]	공권력[공권력]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례]	횡단로[횡단로]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원료]	구근류[구근류]	

★ 오답 해설:

- ② ‘임진란’의 발음은 [임 : 진난]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공권력’의 발음은 [공권력]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광한루’의 발음은 [광 : 할루]이므로 ‘ㄹ’의 발음은 [ㄹ]이다.
- ③ ‘대관령’의 발음은 [대 : 관령]이므로 ‘ㄹ’의 발음은 [ㄹ]이다.
 ‘입원료’의 발음은 [이원료]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협력’의 발음은 [협력]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 ④ ‘동원령’의 발음은 [동 : 원녕]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구근류’의 발음은 [구근류]이므로 ‘ㄹ’의 발음은 [ㄴ]이다.
 ‘난로’의 발음은 [날 : 로]이므로 ‘ㄹ’의 발음은 [ㄹ]이다.

문 8.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가)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궤(北關)이 천리(千里)로다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나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 (나) 동풍이 건들부니 물결이 고이닌다
 돌드라라 돌드라라
 동호를 도라보며 서호로 가자스라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압뫼히 디나가고 뫼뫼히 나아온다

- ① (가), (나) 모두 어부(漁夫)가 지은 노래이다.
- ② (가), (나)의 화자는 모두 어촌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 ④ (나)는 어촌의 풍경을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정답: ④ - 독해 - 문학 - 고전 문학의 내용 이해

★ 정답 해설:

중장에서 ‘서호로 가자’고 한 뒤, 종장에서 ‘앞산이 지나가고 뒷산이 나아온다’ 하엿다. 이는 배를 타고 이동 중인 모습을 그린 것이다. 또한 노 젓는 소리와 어부의 외침 소리를 형상화한 후렴구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를 통해 역동성이 한층 강조된다.

[작품해설]

(가) 참고) 이현보, <어부단가 5수>(우월한 독해 p. 260)

- 해제: ‘어부사(漁父詞)’라고도 불리는 이 시조는,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작자 미상의 ‘어부가’ 10수를 이현보가 5수로 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가어옹(假漁翁)이 등장하여 양반 계급이 추구하는 삶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한 양반들의 이상적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서도 나랏일에 대한 근심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에서 우국지정이 나타난다.
- 주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마음과 우국지정(憂國之情)
- 구성
 - 1수: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운 심정
 - 2수: 욕심 없는 삶
 - 3수: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 4수: 시름을 잊은 한가로운 생활의 추구
 - 5수: 자연에 은거하면서도 나랏일을 잊지 못하는 우국지정

(나) 참고) 윤선도, <어부사시가 춘 3>(우월한 독해 p. 260)

- 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10수씩 총 40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작가가 보길도에서 은거할 때 지은 것이다. 다른 시조와 다르게 후렴구가 들어가 있는데 초장 다음의 후렴구는 각 계절마다 출발에서 귀선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고, 그 후렴은 계절마다 동일한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중장 다음의 후렴구는 전 수 동일하게 노 젓는 소리와 어부의 외침 소리를 형상화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흥겨움을 살리고 있다. 표현 면에서 계절감을 살리면서 자연을 묘사하는 부분이 참신하고 우리말 묘미를 살리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 강호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주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

★ 오답 해설:

- ① (가, 나) 모두 어부(漁夫)가 지은 노래가 아니다.
 ② (가)의 화자는 속세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어촌 생활을 묘사하지만 이에 만족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③ (가)의 화자는 '어주(魚舟)에 누어신들 나즌 스치 이시랴'라며 나라에 대한 걱정을 뿌리치기 어려워하고 있다.

문 9. 밑줄 친 단어 중 그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것은?

- ① 그는 음식이 너무 매워 거의 먹지 못했다.
 ② 장군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했다.
 ③ 그 아이는 부모의 바람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④ 오늘은 너무 바빠서 동창회에 가지 못했다.

★ 정답: ③ - 이문 문법 - 형태론 - 보조 용언의 의미

★ 정답 해설:

형용사 '똑똑하다'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상태에 미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 오답 해설:

①②④ 동사 뒤에서 '-지 못하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문 10. 로마자 표기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립문 Dongnimmun, 광화문 Gwanghwamun
 ② 선릉 Seolleung, 정릉 Jeongneung
 ③ 신문로 Sinmunno, 율곡로 Yulgongro
 ④ 한라산 Hallasan, 백두산 Baekdusan

★ 정답: ③ - 어문규정 - 로마자 표기법

★ 정답 해설:

'신문로'는 [신문노]로 발음하므로 자음 사이에서의 동화 작용을 표기에 반영하여 'Sinmunno'라 적는다.

'율곡로'는 '로'는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로마자 표기법 제5항에 따라 붙임표(-)를 넣어 'Yulgok-ro'라 적는다.

★ 오답 해설:

- ① '독립문'은 [동님문]으로 발음하므로 'Dongnimmun'이라 적는다.
 '광화문'은 [광화문]으로 발음하므로 'Gwanghwamun'이라 적는다.
 ② '선릉'은 [설릉]으로 발음하므로 'Seolleung'이라 적는다.
 '정릉'은 [정능]으로 발음하므로 'Jeongneung'이라 적는다.
 ④ '한라산'은 [할 : 라산]으로 발음하므로 'Hallasan'이라 적는다.
 '백두산'은 [백두산]으로 발음하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Baekdusan'이라 적는다.

문 11.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잘못된 사람이 되려 큰소리를 친다.
 ② 너는 시험이 코앞인데 맨날 놀기만 하니?
 ③ 어제 일을 벌써 깡그리 잊어버렸다.
 ④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억수로 흘렸다.

★ 정답: ① - 어문규정 - 표준어 규정

★ 정답 해설: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란 뜻의 부사 '도리어'의 준말은 '되려'가 아닌 '되레'이다.

★ 오답 해설:

- ② '맨날'은 '만날'의 복수 표준어이다.
 ③ 부사 '깡그리'는 '하나도 남김없이'란 뜻의 표준어이다.
 ④ 명사 '억수'는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코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표준어이다.

문 12.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주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② 할아버지께 여쭙위 보시면 됩니다.
 ③ 라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어라.
 ④ 내 처지가 너무 설위서 눈물만 나온다.

★ 정답: ① - 이문 문법 - 형태론 - 용언의 활용

★ 정답 해설:

'곤혹스럽다'는 '다'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므로, 어간의 '다'이 '우'로 변한다. 따라서 '곤혹스러우'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 오답 해설:

- ② '여쭙다'와 '여쭙다'는 복수 표준어이다. '여쭙-'에 '-어'가 연결되면 '여쭙위'가 되고 '여쭙-'에 '-어'가 연결되면 '여쭙어'가 된다.
 ③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는 뜻의 동사는 '불다'이다. '불다'는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ㄷ' 불규칙 활용하여 '불어'가 되지만,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오면 어간이나 어미의 변형 없이 '불기'로 활용한다.
 ④ '서럽다'는 모음 어미 '-어서'가 오면 '서러워서'가 되지만, 복수 표준어인 '설다'는 '다'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므로, 모음 어미가 오면 '설위서'로 활용한다.

문 13.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예술작품이 그렇게 보여야 하는, 또는 그렇게 존재해야 하는 특별한 방식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간단한 손도구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고, 상품 상자나 쓰레기 더미나 한 줄의 벽돌, 속옷 무더기, 도살된 동물 등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술의 역사가 입증하였을 때,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말경이 되어서야 이것이 충분히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철학적 미술사가 종말에 이르게 되었다.

- ① 예술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성만으로 그 지위와 의미가 파악된다.
 ② 예술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거나 비평해야 한다.
 ③ 예술의 종말이라는 비관적 관점에서 예술의 위기와 무능력이 나타난다.
 ④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

★ 정답: ④ - 독해 - 비문학 - 내용확인 긍정발문

★ 정답 해설:

제시된 글에 따르면, 예술 작품은 더 이상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다. 굳이 특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예술의 본성이 '철학적 의식'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예술에 있어 겉보기보다 작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해졌음을 말한다. 따라서 예술가가 만들지 않은 대상도 '의미'를 부여하면 예술품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예술은 더 이상 형식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각적 인 속성들만으로는 사물의 지위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졌다.
- ② 예술에 있어 행위자의 '의미'가 중요해짐에 따라 예술의 '진정한 목표'를 특정하기 어려워졌다.
- ③ 예술의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예술의 위기나 무능력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문 14.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설화적 상상 속에서는 경험적 현실에서 생각도 못할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다. 사람이 단숨에 수천 리를 가고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며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이 되고 왕자가 한순간에 개구리가 되며 한 사람이 열 명, 백 명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상적 형상을 말하고 듣는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는 협찬 운동을 하게 된다. 사고의 반경이 부족 넓어지고 사유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그로부터 인간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 나간다. 인류 역사의 발전은 이런 인지적 운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해도 좋다. 틀을 깨는 자유와 역동의 상상적 인지를 통해서 말이다.

- ① 형상(形象)
- ② 반경(半徑)
- ③ 사유(思惟)
- ④ 지경(至境)

★ 정답: ④ - 어휘 - 한자어

★ 정답 해설:

문맥상 '인간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려 나간다'의 '지경'은 '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우'나 '형편', '정도의 뜻을 나타내는 지경(地境)이 적절하다.

地 땅 지 / 境 지경 경

★ 오답 해설:

- ① 형상[㉠](形象/形像): 「1」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2」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떠오르는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거나 표현함. 또는 그런 형태.
形 모양 형 / 象 코끼리 상
- ② 반경[㉡](半徑): '반지름'의 전 용어.
半 반 반 / 徑 지름길 경, 길 경
- ③ 사유[㉢](思惟): 「1」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2」 『철학』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思 생각 사 / 惟 생각할 유

문 15. '의존명사 - 조사'의 짝이 아닌 것은?

- ① 「할 만큼 했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
- ②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 달라고 전해 주세요.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 ③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
↳너만 와라.
- ④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

★ 정답: ① -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의 통용

★ 정답 해설:

'할 만큼 했다.'의 '만큼'은 용언의 관형형 '할'의 수식을 받으며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나는 밥통째 먹으리만큼 배가 고팠다.'의 '만큼'은 '-으리만큼'의 형태로 쓰여 '-을 정도로'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의존 명사 - 어미'의 짝이다.

참고로, 격 조사 '만큼'은 체언 바로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낸다.

예)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 / 명주는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참고) 띄어쓰기에 주의해야 하는 조사 중 (알기 쉬운 문법 p. 162)

만큼 (= 만치)	격 조사	부모님에게만큼은 잘해 드리고 싶었다.
	의존 명사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
대로	보조사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의존 명사	예상했던 대로 시험 문제는 까다로웠다.
뿐	보조사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실력뿐이다. (한정)
	의존 명사	그는 웃고만 있을 뿐이지 아무 말이 없다. 시간만 보냈다 뿐이지 한 일은 없다.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 * 어미: 「(어간)~ㄴ뿐더러, 「~다뿐이겠니?」(「그 이상」이라는 의미)
만	보조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의존 명사	그는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시간의 경과) 그가 화를 낼 만도 하다.

★ 오답 해설:

② '들어오는 대로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 주세요.'의 '대로'는 용언의 관형형 '들어오는'의 수식을 받으며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네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의 '대로'는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10년 만에 우리는 만났다.'의 '만'은 시간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말인 '10년' 뒤에 쓰여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너만 와라'의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의 '뿐'은 관형절 '시키는 대로 할'의 수식을 받으며 다만 어떠한가나 어떠한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그래야 우리는 다섯뿐이다.'에서 '뿐'은 체언 '다섯' 뒤에 붙어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문 16.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울하 울하 아련 비올하.
여흘란 여디 두고 소해 자라온다.
소곳 얼면 여흘도 도흐니 여흘도 도흐니.

ㄴ.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ㄷ. 출하리 쇠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트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뜨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서도 내 님 조츠려 하노라.

ㄹ.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츄노미라.
낙시 드리치니 고기 아니 무노미라.
무심흔 들빔만 싣고 빈 빈 저어 오노라.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ㄱ - ㄴ - ㄹ - ㄷ ④ ㄴ - ㄱ - ㄹ - ㄷ

★ 정답: ④ - 지식국어

★ 정답 해설:

- ㄴ. <구지자> - 신라 시대에 쓰인 고대 가요이다.
ㄱ. <만전춘별사> - 고려 시대에 쓰인 고려 가요이다.
ㄹ. 조선 성종 때 쓰인 월산대군(성종의 형)의 시조이다.
ㄷ. <사미인곡> -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인 정철의 가사이다.

문 17. 국어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형사는 체언만 수식할 수 있다.
②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③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④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 정답: ③ - 이론 문법 - 형태론 - 품사

★ 정답 해설:

‘이곳이 가장 꼭대기이다.’, ‘저기가 바로 남대문이다.’의 ‘가장’과 ‘바로’는 성분 부사어로, 위치를 나타내는 체언인 ‘꼭대기’, ‘남대문’을 꾸미고 있다. 성분 부사어는 수량이나 정도, 위치를 나타내는 체언을 꾸밀 수 있다.

★ 오답 해설:

- ① ‘이, 그, 저’ 등의 지시 관형사, ‘새, 흰, 순’ 등의 성상 관형사, ‘한, 두, 세, 첫째, 둘째, 셋째’ 등의 수 관형사 등을 포함한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 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품사이다.
② ‘고향의 친구’에서 관형격 조사 ‘의’를 뺀 ‘고향 친구’와 같은 형태로,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체언이 체언 앞에서 관형어가 될 때는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너무 빨리는 오지 마라’와 같은 형태로 부사에 보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문 18.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그때의 사회적 합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부는 대개의 경우 경제 발전과 같은 거시적 성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당성의 취약함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고자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 을(를)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이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정치적 결정을 위한 ㉡ (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 ㉡

① 문제 합의 ② 갈등 성과

③ 갈등 의제 ④ 의제 문제

★ 정답: ③ - 독해 - 비문학 - 빈칸 추론

★ 정답 해설:

둘째 문단은 첫째 문단을 전제로 ‘정당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

- 사회적 ㉠ 을(를) 정치의 틀 안으로 가져오고 / 이(사회적 ㉠)를 진지하게 다뤄야 할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해 / 정치적 결정을 위한 ㉡ (으)로 만드는 것

첫째 문단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한다고 하였으므로 ㉠에 적합한 말은 ‘갈등’이다. 이 ‘갈등’을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전환하여 ㉡을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은 정치적 결정을 위한 문제, 즉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문 19.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집에서 가져 왔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다.
② ‘는’은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일을 빨리는 한다’의 경우에는 보조사이다.
③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이지만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의 경우에는 보격 조사이다.
④ ‘과’는 ‘눈과 같이 하얗다’의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이지만 ‘책과 연필이 있다’의 경우에는 접속 조사이다.

★ 정답: ② - 이론 문법 - 형태론 - 조사

★ 정답 해설:

주격 조사에는 ‘이, 가, 에서, 께서’가 있으며 ‘은/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될 때, 어떤 대상이 문장 속에서 화제일 때, 강조의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보조사이다. ‘그는 학교에 갔다’와 같이 주격 조사 위치에 보조사 ‘은/는’이 오는 것은 주격 조사라서가 아니라 주격 조사를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일을 빨리는 한다’에서의 ‘는’은 부사 ‘빨리’에 결합하여 문맥에 따라 대조 혹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다음 이유진 나래 카페: <http://cafe.daum.net/naraeyoujin>

★ 오답 해설:

- ① ‘에서’는 주로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만, ‘우리 학교’와 같은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으면 주격 조사의 기능을 한다.
‘에서’는 부사격 조사로서 처소, 출발점, 출처, 근거, 비교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나타내는데, ‘집에서 가져 왔다’의 ‘에서’는 앞말 ‘집’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③ ‘이/가’는 주격 조사와 보격 조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형태가 같아 구별해야 한다. 동사 ‘되다’와 서술격 조사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가 서술어인 경우 보어가 필요하므로 ‘그것은 중이가 아니다’에서 ‘가’는 보격 조사이며 이때 주어는 보조사 ‘은’으로 대체한 ‘그것은’이다.
- ④ ‘누과 같이 하랴’에서 ‘과’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책과 연필이 있다’에서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문 20. ‘아랫돌 빼서 윗돌 끼기’와 의미상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미봉책(彌縫策)
② 임기응변(臨機應變)
③ 임시방편(臨時方便)
④ 언 발에 오줌 누기

★ 정답: ② - 어휘 - 속담 + 성어

★ 정답 해설:

아랫돌 빼서 윗돌 끼기: 일이 몹시 급하여 임시변통(臨時變通)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임기응변(臨機應變):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임할 립, 임 / 機 틀 기 / 應 應할 응 / 變 변할 변
참고) 일, 사건, 상황, 전개 과정, 처지, 해결, 결과 등과 관련된 표현들
中 (저절로 어휘 · 한자 p. 255)

- 근본적인 해결책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해결책만 생각함.
- 고식지계(姑息之計), 동족방뇨(凍足放尿), 하석상대(下石上臺), 미봉책(彌縫策), 임시변통(臨時變通). 아랫돌 빼서 윗돌 끼기, 언 발에 오줌 누기. 눈 가리고 아웅하기

★ 오답 해설:

- ① 미봉책(彌縫策):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
彌 미룩 미, 두루 미 / 縫 꿰맬 봉 / 策 피 책, 채책 책
- ③ 임시방편(臨時方便) = 임시변통(臨時變通)
임시변통(臨時變通): 갑자기 터진 일을 우선 간단하게 둘러맞추어 처리함.
임할 립, 임 / 時 때 시 / 方 모 방, 본뜬 방 / 便 편할 편
임할 립, 임 / 時 때 시 / 變 變할 변 / 通 통할 통
- ④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臨時變通)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유진
나/래/국/어

만원
특강



국모닝

이유진 모의고사



수강료 '10,000원'
올인원 문풀 수강생은 '무료 수강'

7월 6일(금) 개강
오전 7시 30분 _ 6주

해나 7시 30분 모고 시행
틀 7시 150분부터 피드백 실시
셋 8시 130분 피드백 종료
플러스 9시부터 올인원 모고 시작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 남부고사학원 021815-7819, 3280-9990 온라인 023489-9500

이유진
나/래/국/어

나래국어

문풀 올인원국어

7급+N수

1교시(90분) **7급/9급 2가지 버전 모의고사**

2교시 **문풀로 세우는 문법 규정**

3교시 **문풀로 세우는 독해**

4교시(30분) **어휘한자 테스트 피드백**



7월 6일(금) 개강
09:00~13:00 / 6회

교재 : 올인원 (고시용네) + 모의고사 프린트

기존 나래국어 수강생 50% 할인!

PMG 박문각공무원 www.pmg.co.kr

노량진 남부고사학원 021815-7819, 3280-9990 온라인 023489-9500